

자료제공: 2024. 6. 19.(수)

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1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정책담당관	권명희	02-2133-9390
동행지수관리팀장	유선숙	02-2133-9394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scpm.seoul.go.kr/companion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7쪽

오세훈표 약자정책 대시민 약속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 주거·안전·민생 분야 상승

- 작년 10월 개발 '약자동행지수' 111로 기준연도 대비 11% 상승, 6대 영역·50개 지표
- 주거, 안전, 의료·건강 20% 이상↑, 생계·돌봄 소폭↑, 교육·문화, 사회통합 소폭 하락
- 민생안정, 新 사회적 위험 관련 지표 대다수 '상승'... 개선된 시민의 삶 확인
- 약자 관점 정책 수립부터 예산 편성, 정책 환류 등 시정 전반 체계적 성과관리 활용
- 오 시장, "시민 삶의 질 골고루 개선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 구축"

-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특히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 구상, 예산편성, 정책 환류 및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 지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출됐다.
 -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현장 관계자와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서울시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100명을 평가단으로 위촉해 영역별 성과 평가와 주요 사례 현장실사, 우수사례 선정 등을 진행했다.
 - 지표별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다방면의 검증 과정을 거친 세부 사업별 성과와 외부요인 등을 분석해 지수와 지표 결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했다.
-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 첫 평가 결과 생계, 주거, 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독사, 고립·은둔 등 新 사회적 위험 관련 안전영역 지수는 대부분 상승해 약자 동행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졌다는 분석이다.
- 시는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자는 시정 추진 방향의 효과성도 확인됐으며, 다만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 또한 지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영역(125.1): 가장 높은 상승, 주거불안 덜고 주거환경 개선 생활형 밀착정책 추진>

구성 지표

- ①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②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③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 ④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⑤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⑥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로 ‘125.1’이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그 결과 지원규모가 ’22년 3,001호 → ’23년 4,969호로 전년 대비 65.6% 증가했다.
- 이외에도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22년 1,292백만원 → ’23년 7,894백만원)하고 민간임대주택까지 지원을 확대(무이자·저리 대출)하는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 공공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체감형 지원을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전 영역(124.9):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약자 대상 분야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구성 지표

- ①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② 범죄 등 피해자 서비스 지원 규모 ③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
- ④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⑤ 안전 취약가구 예방지원 규모 ⑥ 범죄예방 CCTV 설치율
- ⑦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⑧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규모 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이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사업은 ’22년 실태조사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후 지난해 총 1,119명의 청년을 발굴하고 전년(237명)보다 320명 많은 557명을 밀착 지원했다.
 -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도 ’22년 5만9,640가구 → ’23년 6만7,771가구로 늘었다.
 -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도 노력으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규모’ 또한 ’22년 1,830만명에서 ’23년 2,615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42.9% 상승했다.
- <안전지수> 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 몫을 했다.

<의료·건강 영역(120.1):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격차 완화, 시민 정신건강 회복 집중>

구성 지표

- ①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② 장애인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③ 치매환자 사례관리율
- ④ 지역보건기관 확충 규모 ⑤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⑥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률
- ⑦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⑧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⑨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관련 등록관리율 ⑩ 마약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 규모

-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 이외에도 ‘마약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 규모’(’22년 71명 → ’23년 83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22년 27.10% → ’23년 30.16%) 지표 또한 강도 높은 관리와 지원을 펼친 결과 10% 이상 상승했다. 정신·신체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보건기관(보건지소)도 ’22년 37개에서 ’23년 41개소로 늘려 시민 편의를 높였다.
 -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추세를 반영, 취약계층의 의료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서비스 이용 시민 중 1,38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만족도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용 시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료·건강지수의 경우 시민들이 일상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인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회복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참여가 높았다.

<생계·돌봄 영역(100.8): 취약계층 자립지원 생계 사다리 복원, 영유아 틈새돌봄 등 지원>

구성 지표

- ①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②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③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 ④ 노동약자의 생계활동 지원 규모 ⑤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 ⑥ 위기가구 지원을
- ⑦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⑧ 재가돌봄 이용 노인의 규모 ⑨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
- ⑩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⑪ 노숙인 규모 ⑫ 돌봄서비스 품질 만족도

-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하여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 안심소득 1단계 지원대상 484가구 가운데 23가구(4.8%)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보장은 물론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은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주말보육어린이집 등을 확대 운영 결과, ’22년 9.22%에서 ’23년 10.83%로 증가해 생계·돌봄 영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의 구축과 양질의 돌봄지원 일환이다.
 - 장기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23년 1,021명),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설치’(23.8월)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23년 122명) 등의 신규 정책도 추진했다.
- 생계·돌봄지수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돌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교육·문화 영역(98.4): 서울린·경계선지능인 등 소외계층 대상 지원 교육격차불평등 해소>

구성 지표

- ①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②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③ 취약계층 재능개발 지원 규모
- ④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⑤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 수준
- ⑥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⑦ 공공 공연장에서의 무장애(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 ⑧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다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 서울린의 학습 효과 및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지표’는 ’22년 75점에서 ’23년 80점으로 향상됐고, 서울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서울린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사교육 대체를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 효과(사교육비 지출 감소가구 42.1%,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 25.6만원)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22년 6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및 시·청각 장애인,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22년 339,615명 → ’23년 363,565명)도 증가해 지표가 7.1% 상승했다.
 -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22년 45.08% → ’23년 38.22%)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는 일부 하락하여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시는 문화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 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 영역(97.9): 다문화 구성원 소속감정보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 접근성 등 상승>

구성 지표

- ①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②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③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
- ④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22년 7.11% → ’23년 6.64%),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22년 29.42% → ’23년 27.47%),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22년 5.43점 → ’23년 5.37점) 지표는 소폭 하락하였다.
- 시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 하락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6월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https://scpm.seoul.go.kr/companion>)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민생경제 위기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더 촘촘한 안전망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 관련 사업에 13조 7천억원을 배정하였다.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약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해 정책 효과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 추경은 ▲청년 안심주택 선매입(680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9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8억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

□ 아울러 이번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과 개선방안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 외부평가단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정순돌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부)는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약자동행 정책 개발과 예산편성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 시민참여옴부즈만인 김영민 위원(한국직업진로코칭협회 회장)은 “약자동행지수가 시민생활 전반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표임을 실감”했다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효과적 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년
약자동행지수
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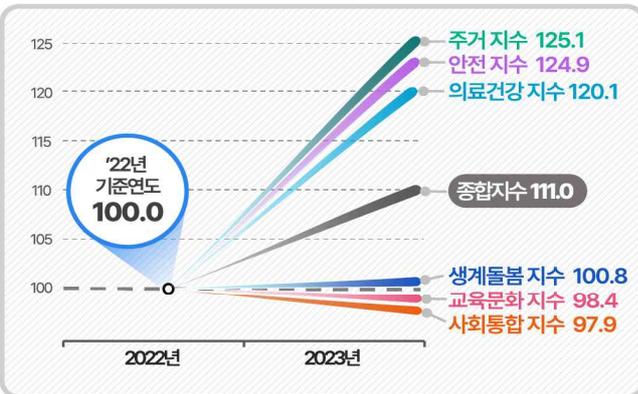
* 기준연도(2022년) 대비 11%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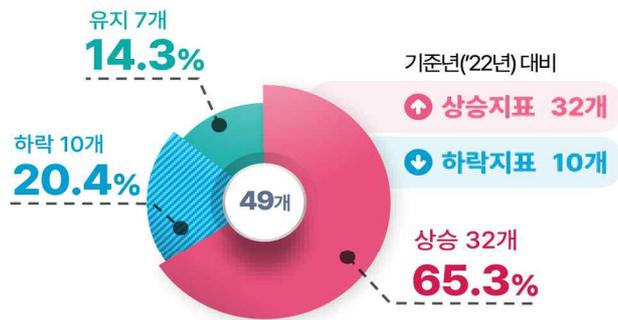
약자동행지수

종합지수

영역별 지수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10대 중점과제	과제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과제2: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과제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	과제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과제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회복 촉진	과제6: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과제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과제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과제10: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50개 세부지표	12개 정량10, 정성2 지표1: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대 만족도	6개 정량6 지표3-1: 공공임대주택 재고수	10개 정량10 지표4-1: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8개 정량7, 정성1 지표6-1: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9개 정량8, 정성1 지표8-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5개 정량3, 정성2 지표10-1: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 '24년 신규 추진 관련지표 1개 제외, 49개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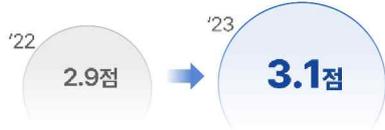


생계돌봄 지수

100.8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전년대비 + 0.2점



근로를 하고 있는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전년대비 - 1.51%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장
가입 유지율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전년대비 - 0.37%



서울시 고용 관련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창업 비율

노동약자의 생계활동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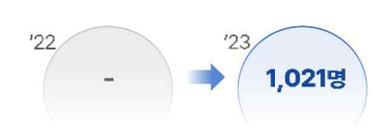
전년대비 - 175명



질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받은
노동약자 수

위기 소상공인 발굴 지원 규모

신규



위기 소상공인
(매출감소, 대출잔액 증가 등)
조기 발굴 및 위기 극복
맞춤형 종합지원 인원 수

위기가구 지원을

전년대비 - 6.94%



위기정보입수 대상자 중
선별기준에 따라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비율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전년대비 + 1.61%



전체 어린이집 수 중
아간, 주말, 휴일에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비율

재가돌봄 이용 노인인 규모

전년대비 + 1,026명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자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인 규모

전년대비 + 2,078명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신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 및 생활지원을 위해 제공된 맞춤형 서비스 이용자 수

노숙인 규모 □

전년대비 - 110명



노숙인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등) 수

돌봄서비스 품질만족도

전년과 동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만족도



주거지수

125.1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전년대비 + 8,771호



무주택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전년대비 + 71호



노숙인,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및 건강 또는 안전 취약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주택의 공급 호수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전년대비 + 757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저소득가구, 장애인가구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가구 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규모

전년대비 + 1,968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이동을 완료한 가구 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신규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대상단지 주택 중 품질개선 사업에 착공한 주택의 비율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

전년대비 - 3.73%



무주택 청년 임차가구 중 월소득 대비 월 임차료 또는 주거비가 일정 수준 초과한 청년 가구의 비율

□ 수치가 낮아질수록 좋은 지표



의료건강 지수 120.1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

전년대비 + 4,884명



노인 및 건강취약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인원수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전년대비 + 2개소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춘 의료시설수

치매환자 사례관리율

전년대비 + 0.13%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중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의 비율

지역보건기관 확충 규모

전년대비 + 4개소



지역주민과 밀접한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등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기관(보건지소)수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전년대비 + 1,559명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수

취약계층의 식품 미보장률

전년과 동일



저소득가구 중 경제적 이유로 식품섭취 결핍을 경험한 가구 비율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전년대비 + 3.06%



경찰, 소방으로부터 의뢰된 자살 고위험자 중 일반관리 및 등록관리 대상자의 비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전년대비 + 8,820명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돌봄 및 심리,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한 맞춤형 서비스(상담, 교육, 치료 등) 이용자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관련 등록 관리율

전년대비 + 0.06%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관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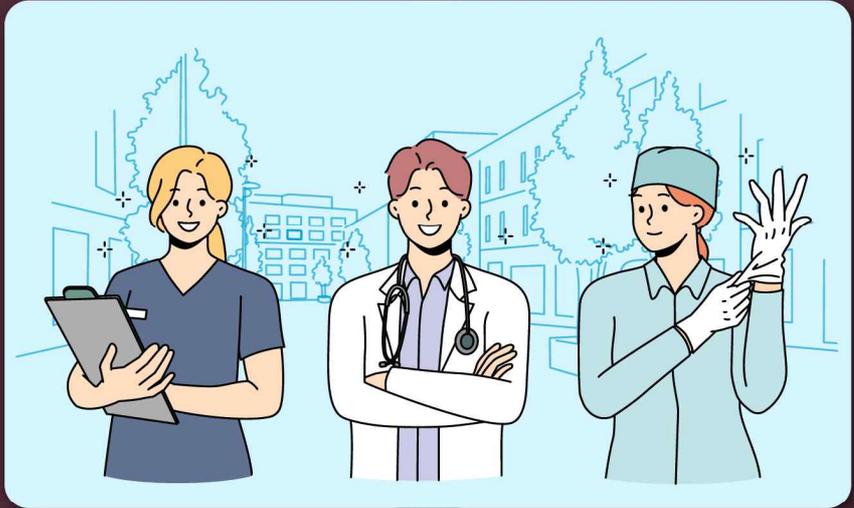
수치가 낮아 집중수록 좋은 지표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지원 규모**

전년대비
+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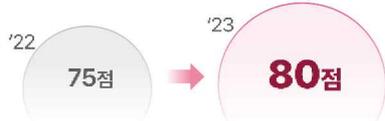
마약중독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한
치료 재활 서비스 지원 인원 수



교육문화 지수 98.4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전년대비
+ 5점



서울권에 참여한 취약계층
교육대상자의 학습태도 및
학습역량 수준

**교육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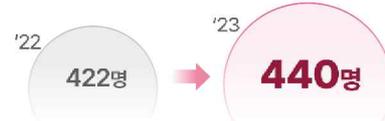
전년대비
+ 23,950명



경계선지능인, 다문화가족,
시청각장애인 등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에 참여한 인원

**취약계층 재능개발
지원 규모**

전년대비
+ 18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체능 교육에 참여한 인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지원율**

전년대비
+ 0.87%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복귀 및
사회적응을 위해 제공한 상담
및 복합지원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비율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 수준**

신규



디지털 취약계층(노인, 장애인)의
디지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활용역량 수준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전년대비
- 6.86%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 문화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공공 공연장에서의
무장애(배리어 프리)
공연 비율**

전년대비
-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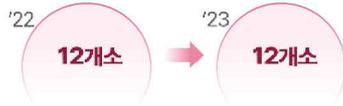
이제본 공연장(신안문화도회
여강)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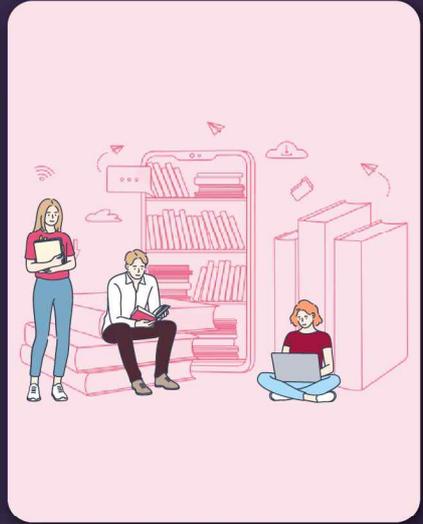
공공 공연장 전체 공연 중
장애인 관람 편의를 위해
자막, 음성해설 등이
제공된 공연의 비율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

전년과 동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성·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한 공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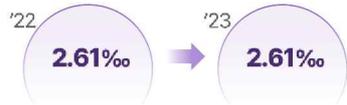


안전 지수

124.9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전년과 동일



당해연도 추계 아동 인구(0-17세)
천 명당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

**범죄 등 피해자
서비스 지원 규모**

전년대비
+ 41,214건



각종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및
학대(노인장애인) 등
피해자에게 제공된 맞춤형 서비스 건수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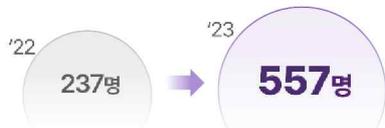
전년대비
+ 8,131가구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시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하는 가구 수

**고립·은둔 청년
발굴 지원 규모**

전년대비
+ 320명



도움이 필요한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의 청년,
외출이 없는 청년 등을
발굴하고 지원한 인원 수

**안전취약가구
예방지원 규모**

전년대비
+ 9,493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한 가구 수

**범죄예방 CCTV
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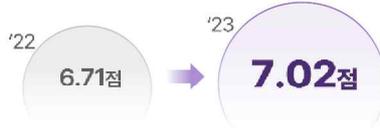
전년대비
+ 7.30‰



당해연도 인구 1만 명당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골목길, 우범지대 등에 설치된
CCTV 대수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전년대비
+ 0.31점



교통약자(노인, 장애인)의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만족도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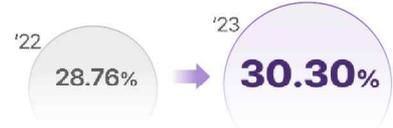
전년대비
+ 7,854,506명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 수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

전년대비
+1.54%



전체 보행 교통사고 중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 비율



사회통합 지수 97.9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전년대비
+ 0.05점



다문화가족이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전년대비
- 0.47%



서울시민중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의 비율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

전년대비
- 1.95%



서울시민중 기부 경험이
있는 시민의 비율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전년대비
- 0.06점



사회적약자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수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전년대비
+ 2.85점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서울시누리집 정보접근성
평가 평균 점수



수치가 낮아질수록 좋은 지표

< 가족돌봄청년 >

“제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인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힘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청년들을 발굴하여 필요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 생계 및 의료비 지원, 주거안정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지원해주니 사회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김OO(익명, 30대)

< 희망의 집수리 지원가구 >

“배전판이 오래되고 덮개가 없어 빗물과 먼지가 쌓여 화재가 일어날까 걱정했는데 서울시에서 오래된 배전판과 전깃줄을 싹 새로 교체해주셔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보일러도 고장이 나고 여건상 교체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춥게 지냈는데 바닥에 전기판넬을 깔아주시고 바깥문 틈새도 막아주셔서 집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 유OO(익명, 2023년 수혜가구)

“집이 반지하라 벽지와 장판에 곰팡이가 가득했는데, 새로 교체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호흡기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 김OO(익명, 2023년 수혜가구)

<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

“골수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러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워 그때마다 아들이 휴가를 내고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다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알게 됐어요. 매번 휴가를 내야 하는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부담을 주지 않아도 돼 너무 고맙고, 덕분에 마음편안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김OO(익명, 은평구)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

“실수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들로 많이 힘들었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쓰럽게 여기거나 부정적인 눈빛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이 더욱 보완되었고 표현력도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5년 후 나의 미래를 떠올려보면 데이터라벨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 (익명, 20대 남성)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

“좀 안전해졌다. 내가 위급할 때 ‘누군가는 알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달고 나니 전화가 그렇게 자주 와요. 8시가 넘어서도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은 퇴근도 안하나 싶은 정도로 전화해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고맙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 (익명, 70대 여성)